

목포시 미디어마케팅 효과 ‘눈에 띄네’

브랜드·관광 전략적 홍보...촬영 지원 요청 ‘원스톱’ 처리 ‘도도술술...’ 등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촬영지 인기

목포시가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행을 위해 1년여 전 조직한 미디어마케팅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설된 미디어마케팅팀은 미디어마케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특화하기로 하면서 구성됐다. 목포의 브랜드 가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미디어 촬영을 지원하는 경우 부서간 협조에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 속도도 늦

어지면서 지체됐던 것도 배경이 됐다. 미디어마케팅팀은 촬영 지원 요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프로그램 유치 활동을 펼쳤다. ‘도도술술라라술’와 ‘꼰대인턴’ 등 드라마가 지난해 목포에서 촬영됐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불타는 청춘’, ‘배틀트립’, ‘신상출시 팬스토랑’, ‘한국인의 밥상’, ‘안싸우면 다행이야’ 등 인기 예능·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목포는 지난해 수차례 소개됐다. 지난해 10월 13일 제재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편이 지난 11일 현재 481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최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해외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성과는 홍보 전문가로부터도 인정받아 목포시는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홍보대상’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지도와 호

감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관광이 위축돼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디어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미디어를 통해 목포를 더 잘 알게 됐다는 관광객의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며 “미디어에서 목포가 자주 나와서 좋고,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관광거점사업에서 미디어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좋은 상품도 널리 알려야 하는 것처럼 목포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매력도 더 넓고, 더 깊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독서생활 독후감상문 공모전 보성공공도서관, 7월 18일까지

전남도보성교육지원청 보성공공도서관이 오는 7월 18일까지 보성군 학생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2021 슬기로운 독서생활 독후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역민들에게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이번 독후감상문 공모전은 초·중·고·대학부, 일반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지정도서로는 초등부 ‘또 다른 연못’, ‘강남 사자님’, ‘중·고등부 ‘독후감의 은하수’, 일반부 ‘아름다운 지키는 것이다’, ‘공간이 만든 공간’ 5권이다. ‘전남도립도서관 올해의 책’ 사업과 라이브러리 스타트북 권장도서를 연계해 선정했다. 참가자들이 쉽게 지정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내 종합자료실에 ‘슬기로운 독서생활 독후감상문 공모전’ 도서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자유롭게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응모부문에 맞는 지정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참가신청서와 독후감상문을 작성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직접 도서관 2층 자료실에 방문해 공모전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은 독서전문가를 위촉해 책에 대한 내용 이해도, 표현력, 띄어쓰기 및 맞춤법 3가지 항목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거쳐 응모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상, 장려상 3명, 총 18명을 선정 8월4일 시상할 예정이다. 김순희 보성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후감상문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학생과 지역민들이 응모하길 바라며,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시간을 가지며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공사 현장 재해 최소화 나섰다

1461개 사업장·불법현장 3개반 7명 점검반 투입 점검

여수시가 오는 6월18일까지 개발부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계획과 3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461개의 개발행위허가 사업장과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 비탈면의 보호조치 및 배수시설 통수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착수 후 장기 방치된 현장과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에 즉시 연락해 초기에 단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265건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고, 13건의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총 27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순경찰,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 간담회

피해자 경제적 지원 협조 구축
화순경찰이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 만연홀에서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와 유관기관 및 경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

제적·심리적 지원 등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경철 화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화순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사례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고당도’ 함평 단호박, 조기 출하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함평의 단호박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의 지역특화작목인 단호박이 일반적인 단호박 출하시기(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조기 출하된다. 함평군은 단호박 조기재배와 수확을 통한 시장 선점으로 지역 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정려금, 기술보급 등으로 단호박 수확시기를 앞당겼다. 조기재배 규모는 13농가 4ha로, 연간 96t 이상

의 단호박을 생산하며 연간 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시설원에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호박 시설재배를 장려해 조기재배와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을 편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섬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적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3건 50명을 검거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